

니노미야 신사의 가구라

시지정 문화재(무형민속)

1995년 6월 26일 지정

전승자: 니노미야 신사 가구라 악부

니노미야 신사는 후나바시시 동부의 대표적인 신사로 그 창건 시기가 고닌 연간(810~824)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된 신사이다.

니노미야 신사의 가구라가 언제부터 전승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오래된 의상 중에는 ‘간세이 11년’(1799) 또는 ‘덴포 8년’(1837)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다.

가구라는 1월 15일과 10월 16일(예제)에는 경내 가구라전에서, 입춘 전날에는 신전에서 봉납된다. 또한 10월 14일에는 야쿠엔다이 신메이 신사에서도 봉납된다. 가구라 악부의 사람들은 현지 미야마의 주민들이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곡목은 다음의 16개 춤이다(명칭은 정식명칭이 아닌 통칭임).

①미코마이 춤, ②오키나마이 춤, ③사루타마이 춤, ④신메이마이 춤, ⑤덴코마이 춤, ⑥우즈메마이 춤, ⑦히리코마이 춤, ⑧오카메마이 춤, ⑨호켄우치, ⑩가토리마이 춤, ⑪겐잔미(상상의 새 ‘누에’ 퇴치), ⑫다마토리마이 춤, ⑬산진마이 춤(떡 던지기), ⑭다이코쿠마이 춤, ⑮시시마이 춤(사자춤), ⑯오니노마이 춤(귀신춤) (다이코쿠마이 춤, 시시마이 춤, 오니노마이 춤은 입춘 전날에만 봉납된다).

이 가운데 오키나마이 춤, 사루타마이 춤, 신메이마이 춤은 특히 중요한 춤으로서 ‘산자(3대 춤)’로 불리고 있으며, 또한 가토리마이 춤과 겐잔미(누에 퇴치)는 시내에서는 여기서만 전승되는 곡목이다. 히리코마이 춤에서는 광대역으로 문어가 등장해 관객의 웃음을 자아낸다. 사용하는 악기는 오나리(보우치다이코 북), 북(시메다이코 북), 피리, 심벌즈(차파)이며 각 1명이 연주한다.

니노미야 신사의 가구라는 간토 지방에 분포하는 12좌 가구라에 속하지만, 독자적인 형태로 진화하면서 신사에 봉납하는 제사로서의 엄숙한 측면과 축제의 오락이라는 측면을 아우르는 특색 있는 가구라이다.

2017년 3월 후나바시시 교육위원회